

치 사

불교미술의 현대화와 대중화에 앞장서온 한국불교미술협회가 개최하는 제23회 기획전 ‘無如佛 - 뜻을 펼치다.’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한해를 마무리하는 겨울의 길목에서 불교미술을 통해 부처님의 온기가 널리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한국문화의 근간이 되는 불교미술은 역사 속에서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전파하고, 원력을 고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현시대에도 민족 특유의 예술성을 가지고 세계와 당당히 소통할 수 있을 만큼 우수성과 독자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불교미술이 어렵고 소중한 까닭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지니는 동시에 불교 이념도 반영하는 종교적 상징성을 두루 갖추고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복합적 사고와 인식을 자신의 정진과 정성으로 표출하는 불교미술 작가들은 예술가이자 불교의 아름다움을 전파하는 포교사의 역할도 함께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無如佛 - 뜻을 펼치다.’라는 주제는 ‘형상 속에서 형상 아닌 것을 보면 곧 여래를 보게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미술에 그치지 않고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대중의 마음을 밝

하고자 하는 의미있는 전시라 생각합니다.

쉽없는 계승과 재창조를 위해 진력을 다하시는 작가님들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어린 격려를 보내며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사대부중 여러분과 늘 함께하기를 발원합니다.

불기2557(2013)년 12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